

예수 부활의 아침

(요20:1-18)

오늘 우리는 다시 사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자 모였습니다. 어떠한 삶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까?

첫째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1-10절).

안식 후 첫 날, 즉 일요일 새벽에 아직 날이 어둡어질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홀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 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녀는 일곱 귀신들렸던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영혼과 육체가 고침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19:25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못박히신 골고다 현장에 마지막까지 주님 옆에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새벽 일찍 무덤을 찾아 왔던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죄 가운데 소망 없이 방황하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두 번째 주님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11-18)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곧장 달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부활의 아침을 빛나게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그 주님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이 사명받은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에게는 다시 사신 주님을 증거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무엇 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의 부활소식을 열심히 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만큼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